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민주공월



2025. 가을호

178



9 772765 298008
ISSN 2765-298X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민주공원

2025년 가을호 통권 178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이행봉 | 편집인 이동일
발행일 2025년 9월 30일 | 간별 계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 등록번호 부산중,바00013
표지 제호 신영복 | 편집장 이보람 편집위원 김보영 배가영 배정애 유한별 이지희
디자인 중간 051-466-8994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 48901)
전화 051-790-7400 전송 051-790-7410 누리집 www.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 민주공원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
youtube.com/민주공원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펴내면서

올해는 광복 80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당연히 찾아올 것이라 믿었던 ‘자주’와 ‘평화’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다시 외세에 의해 이 땅에 비극이 드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비극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천 년 역사와 문화는, 일제의 혹독한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중이 피 흘리며 지켜냈기에 그

힘을 키워 오늘날 세계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향한 길도, 우리 민족이 외치고 또 외친다면 반드시 그 찬란한 길 위에 설 것입니다.

이번 가을호 소식지는 <광복 80주년, 우리 땅의 완전한 자주와 평화를 바라다>라는 주제로,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광복 이후 부산에 남은 흔적들과 그 역사 속에서 찾는 ‘자주’와 ‘평화’의 길, 그리고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현재의 민주주의를 담고 성찰하는 민주공원의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부산시민사회의 기록을 보존하는 민주주의기록관 ‘보존서고’와, 보존서고에 보관 중인 자주·평화운동 관련 사료들을 소개합니다. ‘더 나은’ 코너에서는 80년의 차별을 이겨내며 민족교육을 지켜가는 조선학교 학생들의 이야기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다녀온 민주공원 자원활동가의 후기를 전합니다. 이어 ‘치유와 성장’의 몸짓으로 민주공원에 다시 선 댄스 프로젝트 에게로의 활동 소식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7·27 정전협정일을 맞아,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부산시민 실천 모임에 참여한 회원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눕니다.

이번 가을, 광복 80년의 의미 속에서 진정한 해방의 길에 가까워지길 바라봅니다. 🇰🇷

▲ 표지 : 배지호(하남초), <유관순이 지켜낸 오늘, 우리 함께> : 이 그림은 지난봄 열린 제12회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에서 최우수상(부산광역시교육감상)을 받은 작품이다. 대회에서 어린이들은 다소 어려운 주제인 태극기를 스스로 탐구하고 이야기를 찾아내며 오랜 시간 고민해 작품을 완성했다. 그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 민족이 역사의 고난을 딛고 꿋꿋이 걸어온 발걸음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길 바란다.

목 차

04

마루누리 광복 80년, 부산의 역사에서 자주와 평화의 길을 찾다_지은주

10

민주공원 광복 80돌맞이 기념전시 '독립하는 광복'_이봉미

6월민주항쟁 38주년기념 학술대회
'광복80주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_김민화

제3회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한마당_이보람

민주주의기록관 둘러보기
'부산 시민의 민주주의 기록을 지키는 보존서고'_박지원

기억에서 기록으로
마침내 목이 트이다 : 통일 · 자주 · 평화의 목소리_김호민

20

더: 나은 해방 80주년. '일본 아동기본법에 조선학교 적용을 촉구하는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며_김지운

대한민국민주주의의 빛과 그림자_강동근

Dance Project EGERO_이보람

30

회원과 함께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_유한별

36

민주사랑방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서 온 편지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우리의 시간

소식지를 읽으면 정답을 알 수 있는 십자말풀이

41

민주알림방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 당신입니다!

2025 부산민주공원 교육프로그램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 기록을 모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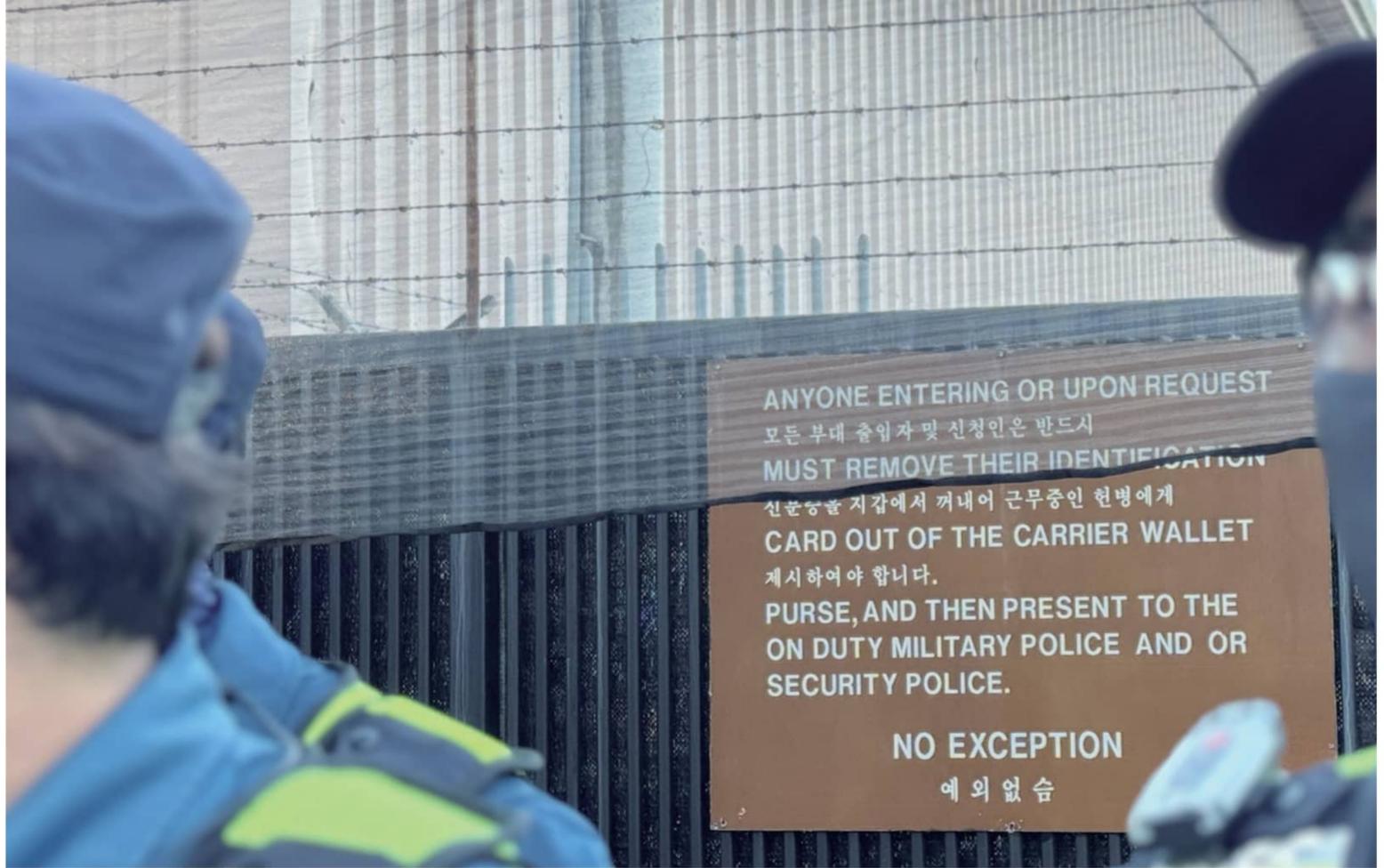
통일문화제

시화전 작품집



기간 : 분단 43년 8월 22일 - 23일
주최 : 부산민국시민협의회
주관 : 통일제준비부산민중문화운동연합회
장소 : 수산대학교
후원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광복 80년, 부산의 역사에서 자주와 평화의 길을 찾다

지은주 | 부산평화너머 상임대표

들어가며

12.3 내란을 빛의 혁명으로 제압하고 맞이하는 광복 80년 오늘, 해방 후 부산에 남겨진 흔적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생각해 본다.

광복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대한국민'의 피와 목숨으로 이루어낸 광복, 암흑 같은 일제강점기 속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꺼지지 않은 민족정신이 만든 결실이었다.

그러나 해방 후 일제의 점령지에 미군이 주둔하였고 선열들이 염원했던 자주독립통일국가의 꿈은 좌절되었다.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미군은 지금까지 주둔하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광복 80년, 우리는 여전히 '자주'와 '평화'를 외쳐야 하는 현실이다.

일제강점기 부산 — 수탈과 전쟁기지의 도시

부산은 일제강점기 내내 식민지 수탈과 전쟁기지화의 전면에서 있었다.

부산근현대역사관 건물은 그 대표적 상징이다. 본래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지어져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강탈하는 전초기지였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 치하에서 미국문화원으로 쓰였고, 그 과정에서 다시금 '점령의 흔적'을 남겼다. 시민들의 투쟁 끝에 반환되어 현재는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 탈바꿈했지만, 수탈과 지배의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장소이다.

또한 부산항은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제국주의 전쟁의 병참기지였다. 항구와 철도, 포대와 군사시설은 일본군의 침략야욕을 위해 촘촘히 들어섰다. 외양포 포대, 장지등 포대, 기장 포대, 부산요새사령부, 김해비행장, 동굴 진지들... 이 모든 시설은 부산을 일제의 전초기지로 만들었다.

부산은 전쟁물자 수송의 출발지였고, 결국 일본이 패망하자 그 자리는 미군이 그대로 차지했다. 식민지 군사기지가 곧바로 미군의 점령기지로 이어진 것이다.

강제동원의 비극과 부산 — 눈물의 항구

부산항은 동시에 ‘이별과 눈물의 항구’였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는 노동자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는 소녀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항을 통해 떠나갔고 가족과 눈물의 이별을 해야 하는 슬픔의 항구였다. 부산항에 정박한 관부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로, 그리고 일본 각지와 동남아 전선으로 끌려가야 했다. 전체 강제동원 피해자의 약 22%가 경상도 출신이었다.

피해자 윤두리할머님은 1943년 부산진역 집 근처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어 영도 제1위안소에 배치되었다. 그곳에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며 심각한 폭력과 학대를 겪어야만 했다. 함께 끌려온 10명의 여성들과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윤두리할머님이 있던 제1위안소는 조선인 2층짜리 여관을 빼앗은 것으로 영도 다리를 건너 왼쪽에 있던 히바리마치라는 유곽 거리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는 위안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도 지리를 잘 아는 여성과 함께 도망하다가 곧 잡혀 와서 심한 구타와 총칼로 크게 상처를 입고 수술까지 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 할머님은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 부산을 떠나 울산에 정착하여 사시다가 2009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영도 위안소를 역사적인 장소로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그의 증언과 고통은 여전히 오늘의 부산에 남아 있다. 영도의 위안소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겨야 했을 역사적 교훈은 우리에게 과제로 남는다.

2016년 초량 일본영사관앞 평화의 소녀상 건립 당시, 수많은 피해자 후손들이 눈물로 찾아와 소녀상 앞에서 있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한 할아버님은 “이 소녀상이 바로 내 누이다”라며, 일본영사관 담벼락을 손으로 더듬어 매일 소녀상을 찾아왔다. 그에게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영영 돌아오지 못한 누이를 대신하는 존재였다. 김상금 어르신은 아버님이 강제동원으로 끌려가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고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에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수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일본영사관 앞에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했다. 부산·경남 지역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참으로 많다.

평화주권의 상징 - 소녀상과 노동자상 건립

이러한 역사적 기억은 부산 시민들의 저항정신으로 이어졌다.

2015년 박근혜정부의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에 분노한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부산 시민들은 1년간 일본영사관 앞에서 한일합의무효를 위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을 벌였고, 마침내 2016년 12월 28일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다.

그 투쟁은 단순한 기념비 설치가 아니라 정부의 굴욕적 태도에 맞선 부산시민의 역사정의를 위한 선언이었다. 지금도 부산의 소녀상은 많은 시민들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찾아오는 공간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시민들도 부산에 찾아오면 소녀상을 방문하고 사죄의 뜻을 표하고 가는 모습을 가끔씩 볼 수 있다.



2016년 12월 31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이 이어졌을 때, 전국적으로 일본 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부산 시민들은 다시금 영사관 앞에 모여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운동을 벌여내었다. 수차례 철거와 압수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노동자상은 지금의 자리에 당당히 세워졌다.

소녀상과 노동자상 건립운동을 통해 부산시민들의 민족자주를 염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정의로운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였다. 소녀상과 노동자상은 역사를 기억하고 자주와 평화의 미래를 향한 시민주권의 표지석이다.

해방 후 부산 — 미군 점령기지의 역사

해방은 곧 독립이 아니었다. 일본군이 물러난 자리에 미군이 들어왔다.

부산은 일제의 군사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미군이 주둔하였다. 모든 시설이 미군에 의해 활용되었고, 부산은 '해방된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점령의 도시'가

되었다. 부산은 일제시기 군용 비행장, 항공기 수리창, 군수공장, 병원, 철도 및 항만 시설 등이 설치되어 이러한 것이 미군의 신속한 주둔을 가능하게 했다.

당시 부산에는 일본군 약 1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일본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미군의 지시에 따라 무장해제 하게 된다. 특히 부산항과 진해항은 일본군의 핵심 귀환 항로가 되었고, 미 제160연대가 배치되어 항만 통제, 일본군 및 일본 민간인의 귀환 업무를 담당했다. 1946년 2월까지 약 113만 명의 인원이 이곳을 통해 수송되었으며, 이 가운데 조선인 귀환자는 71만 명, 일본군은 10만여 명, 일본 민간인은 30만 명이 넘었다.

미군은 부산과 그 인근 지역의 치안과 행정까지 관할 했다. 일본군 병사들을 귀환시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관리했으며, 부산 시내 주요 초소를 점령하고 도시를 통제했다. 결국 해방 이후 부산은 미군이 일제의 군사시설을 그대로 인수한 점령지였다.

서면에 위치한 하야리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반환운동이 시작되어 2010년 부지가 반환받았다. 2014년부터 부산시민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나 토양오염 문제로 골치를 앓았다. 줄속으로 정화하여 시민공원을 조성하였고 소요 비용은 고스란히 부산시가 떠안았다. 지금은 부산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범일동에 위치한 주한미군 55 보급창은 일제 강점기 말 태평양 전쟁기에 일본군 군수 물자를 보관하기 위해 조성되었는데, 해방 후 미군에서 접수하여 관리하였다. 1950년 8월 이래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미군 장비를 일시 보관·저장하였다가 전국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보급 창고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부산엑스포 유치 시 잠시 반환논의가 있었으나 유치 실패 후 논의가 중단되었다.

부산항 북항 제8부두는 6·25 전쟁 당시부터 미군 군수 물자 수송지로 이용되던 부두로 지금은 주한미군 전용부두로 전쟁 연습을 위한 장갑차 등 전쟁물자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상당한 물자들이 8부두를 통

부산항 제8부두



해 들어오고 있다. 8부두에 미군 세균무기실험실이 설치되어 있어 부산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세균 무기실험실 폐쇄를 위한 주민투표 부산시민서명이 20만을 달성하면서 폐쇄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다.

새롭게 설치된 미군기지로 2016년 백운포 주한미군해군작전사령부가 있다. 7천톤급 구축함 30여척 수용능력이 매우 큰 규모의 해군기지. 주한미군 해군 관련 작전, 행정, 그리고 연합 훈련 등을 총괄하며, 한·미 해군의 연합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브론슨의 항공모함 발언처럼 이미 대중국전쟁기지화 되고 있고 백운포는 핵심 전략기지로 한반도를 전쟁 위협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다.

미군기지로 위협받는 평화

8월 을지프리덤실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북은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 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이 훈련은 북에 대해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공격훈련으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윤석열정

백운포기지 핵전력입항반대 기자회견



부 이후로 한미, 한미일군사훈련이 한반도 전역에서 365일 중 340일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 전쟁준비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현대화' 명분으로 한국군을 그들의 동맹체제에 더욱 종속시키고 대만 유사시 한국군 참전을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동맹의 이름으로 우리의 평화를 파괴할 것을 강요한다면, 과연 그것이 동맹이라 할 수 있나? 미국의 패권전략에 복종하며 전쟁터로 내몰리는 대리전장을 우리 스스로가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는 결코 외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할 주권적 권리이다.

맺으며

자주독립을 외치며 일제로부터 이 땅의 해방을 염원했던 그날이 찾아온 지 80년이 지났다.

그러나 8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자주'를 외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해방 후 지금까지 부산에 남겨진 흔적들을 돌아본다.

초량 일본영사관 앞 일본의 진정 어린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평화의 소녀상, 강제징용노동자상 그리고 부산 곳곳에 차지고 있는 미군기지,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주권은 강탈당하고 우리의 평화는 위협받고 있다.

조국광복을 위해 피를 바쳤던 선열들의 그 투쟁정신을 계승하여 자주와 평화를 향한 우리들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렸다'라는 한강 작가의 말처럼 지나온 부산의 역사가 이 땅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곧 다가올 해방, 진정한 자주독립 통일국가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자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세상, 자주롭고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오늘 우리가 다시 꿈꾸며 달려 나가자! 

광복 80돌맞이 기념전시 ‘독립하는 광복’

이봉미 | 민주공원 교육문화팀 전시·문화예술교육

민주공원은 2013년부터 ‘민중미술’이란 타이틀 아래 민중미술의 의미를 다시 조명하고 오늘의 감각으로 사유하는 전시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그중 두 번째 주제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 80돌맞이 기념전시-독립하는 광복』을 선보였다.

‘광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자주,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지만, 그 단어가 품은 시간과 의미는 절대 단순하지 않다. 이번 전시는 바로 그 지점을 주목하며 해방 이후의 역사, 분단과 전쟁, 민주화운동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복’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으로 바라보며, 동시대의 시선으로 해석하였다. 민주공원은 민주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해 온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의식을 꾸준히 일깨워온 장소이다. 이곳에서 ‘광복’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는 것은 과거의 기념을 넘어 오늘의 민주주의 가치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광복’의 과제를 함께 성찰하게 만든다.

이번 전시는 광주에서 출발해 부산과 울산까지 이어지는 순회전으로, 광주·부산·경남 지역 작가가 함께 참여하였다. 이들은 공동의 키워드를 정하고, 탐방과 워크숍을 통해 문제의식을 나누면서 각자의 작품을 구체화 해나갔다. 백산기념관, 박차정 의사 생가,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 이관술 선생 유적 등 부산과 울산 등의 항일 운동가의 흔적을 찾아 답사했으며, 워크숍을 통해 문제의식을 발전시켰다. 기획 단계에서 함께 사유하고, 탐방하며 작가는 작업을 통해 고유한 문제의식과 역사적 감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작가들이 공유한 키워드는 ‘광복’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층위로, 독립운동과 친일 문제, 제노사이드의 기억, 분단과 통일, 민주화운동, 동북아 평화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다층성을 예술로 풀어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김경화 작가의 <민중의 태극> 작품이 가장 먼저 보인다. 무명천으로 민화를 바느질해 태극 문양을 만든 이 작업은, 3·1운동과 한국광복군이 품속에 간직했던 태극기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는 “어디에도 독점되지 않은 우리의 태극기를 다시 돌려놓자”라며 민중의 힘으로 이룩한 해방을 기렸다. 김화순의 <일어서는 목소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구 10월 항쟁, 제주 4·3, 5·18 등 한국 현대사 속 반복된 국가 폭력과 여성에 대한 침묵된 성폭력을 드러내며 해방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고통을 환기했다. 최대주는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자문하면서, 12.3 내란 당시 거리로 달려간 시민들과 젊은 세대를 떠올리며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서지연의 <Anima Mundi 2025-guardian 박차정>은 장군 박차정의 삶을 전통 굿 양식과 융복합 예술로 풀어낸 작업으로, 역사와 신화, 인간과 자연이 교차하는 미적 체험을 제안했다. 문서현은 주먹밥에 민들레 흙씨를 달아 날려 보내는 작은 오브제가 청바지 조각 위에서 피어나는 작품 <민들레 영토>를 제작했다. 청바지는 2004년 겨울을 지나서 2025년 ‘빛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궤적을 의미한다. 방정아와 윤은숙 작가는 노동운동가, 독립운동가, 교육자, 정치인이었던 이관술의 삶에 주목했다. 윤은숙 작가는 <이관술-누리에 깃>을 통해 이관술을 겨울나무 새싹 생명의 잉태로 비유하고 방정아 작가의 <내 모욕을 씻어줘>는 그의 어린 시절 기억이 남아 있는 선바위 물가에 버려진 비석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그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지워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잊힌 이름, 사라진 자취를 통해 작가는 우리에게 기억을 되묻는다.



▲ <독립하는 광복> 전시장 전경
 ▶ 최대주, 《사랑의 이름으로》, 2025, 캔버스에 유화, 193.9×130.3cm



이상호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92인을 그린 <일제를 빛낸 사람들>를 화폭에 담은 작품을 전시했다. 이동근 작가는 오랜 시간 동안 탈북인, 비전향 장기수, 결혼이주민 등 사회·정치적 경계에 선 이들의 삶과 접경 지역의 풍경을 기록해 왔다. 이번 작품 <집-요새사령부로부터>는 일제강점기에 남겨진 '적산'과 그 흔적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떻게 남아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지 추적한다. 그의 작업은 역사의 경계와 개인의 삶이 교차하는 지점을 포착하며,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연장선에서 있음을 환기한다. 홍성담의 <개사과>는 2022년 대선 당시 광주 오월 민중항쟁을 폄훼한 전두환을 찬양해 비판받은 윤석열이 SNS에 '개사과' 사진을 게시한 사건을 되짚으며 비판 없이 넘어간 일을 꾸짖는다. 박재열의 <교의(交椅)>는 제사를 올릴 때 쓰는 긴 다리 의자에 '법원'이란 명패를 물고 있는 까마귀를 얹혀 죽은 권력과 그 곁을 지키는 검찰의 미래를 표현하고자 했다.

전시 <독립하는 광복>은 과거의 광복을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과제들을 함께 돌아보게 했다. 작가들은 해방 이후 이어진 분단과 폭력, 저항과 연대의 시간을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내며, 우리가 여전히 독립의 의미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기억을 되새기고, 그 의미를 지금의 언어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

6월민주항쟁 38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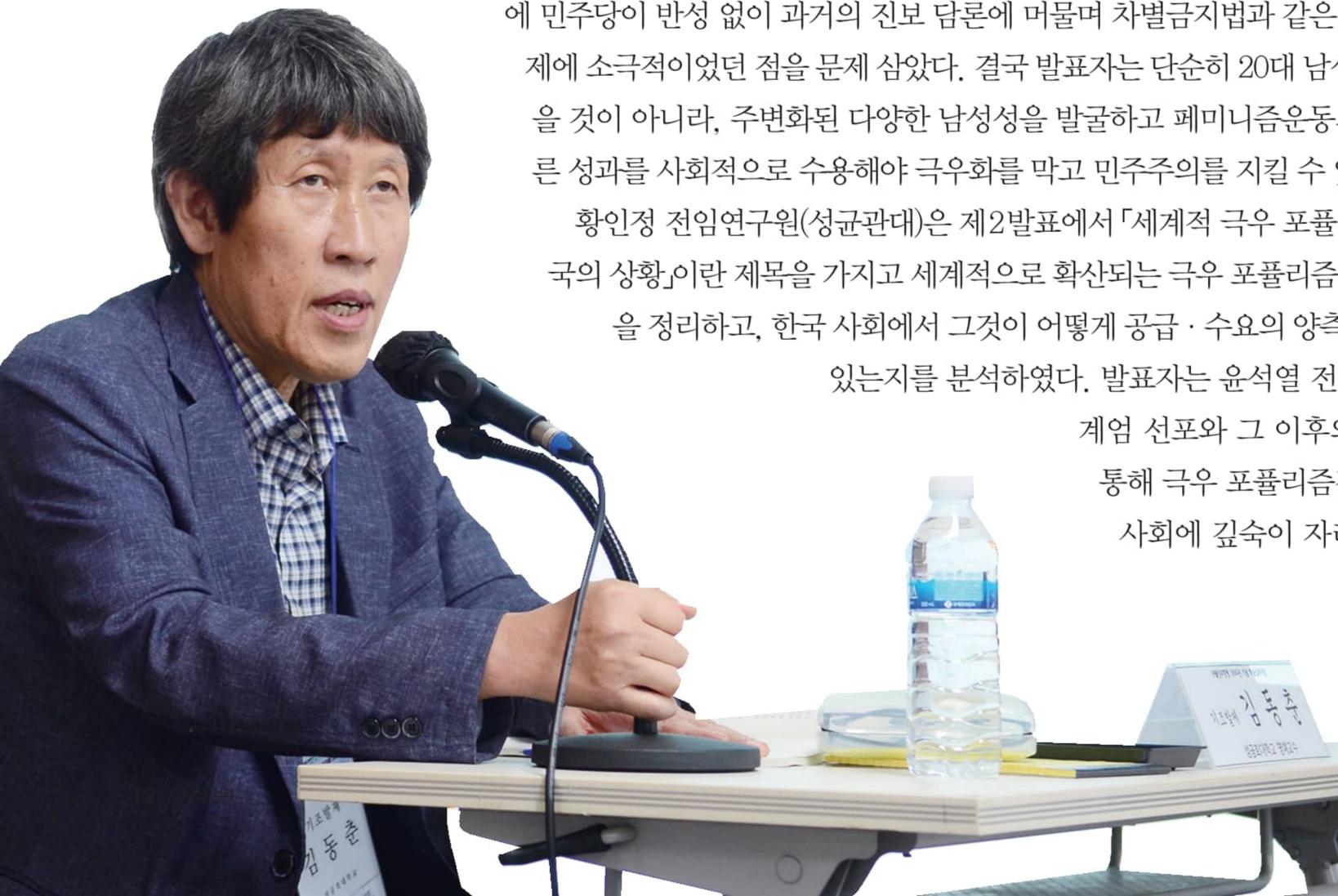
김민화 | 민주공원 학술사료팀 학술기획

8월 27일 수요일 오후 1시, 찌는 듯한 더위를 뚫고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한 연구자들과 시민들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P는 가득 찼다. 이번 6월민주항쟁 38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부터 1948~1987년 반독재·민주화투쟁,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제도적 민주화가 성취된 ‘한국 민주주의’의 의미를 역사적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자리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착 과정과 12.3 계엄의 역사적 맥락」이라는 주제로, 12.3 계엄 사태를 한국 민주주의 굴절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며, “최소 민주주의조차 위협받는 지금, 민주주의의 제도적 결함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1987년 체제가 “민주화였지 민주주의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주의를 제도와 절차에만 한정된 결과, 권력기관 개혁과 시민 참여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았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제1발표에서 한봉석 교수(국립부경대)는 「2025년 한국 민주주의의 버팀목과 ‘대타자’들이라는 내용으로 한국 사회에서 20대 남성의 ‘우경화’ 담론과 민주당을 비롯한 5060 세대 남성성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발표자는 12.3 계엄 이후 광장에서 드러난 여성·퀴어·소수자 연대와 대비되는 20대 남성의 부재, 그리고 그들의 반(反)페미니즘 정체성이 극우 담론과 결합하는 과정을 짚었다. 동시에 민주당이 반성 없이 과거의 진보 담론에 머물며 차별금지법과 같은 젠더·인권 의제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발표자는 단순히 20대 남성을 ‘번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주변화된 다양한 남성성을 발굴하고 페미니즘운동의 리부트에 따른 성과를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극우화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황인정 전임연구원(성균관대)은 제2발표에서 「세계적 극우 포퓰리즘 확산과 한국의 상황」이란 제목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극우 포퓰리즘의 개념과 원인을 정리하고,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 어떻게 공급·수요의 양측에서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발표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정치 과정을 통해 극우 포퓰리즘적 담론이 한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지



적하며, 한국의 포퓰리즘을 서구 사례에 단순 대입하기보다 맥락적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극우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다원성과 소수자 보호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임을 날카롭게 드러냈다.

제3발표에서 장은주 교수(영산대)는 「12.3 내란 이후의 민주시민교육」이란 주제로 12.3 내란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했다. 발표자는 극우적 정치 담론과 혐오, 배제의 언어가 확산되는 현실을 진단하며, 이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와 다원성을 강화하는 교육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민주적 실천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교육의 긴급성과 구체적 과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어느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고, 뜨겁게 달궈진 열기 속에서 시작된 종합 토론은 심포지엄을 마무리하는 자리임에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토론좌장을 맡은 노용석 교수(국립부경대)의 진행으로 발표자와 토론자가 함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에게도 물음을 던졌는데,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이 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조건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한국 민주주의가 취약성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힘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이어서 민주시민교육법 시행에 대해, 근현대사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와 학교 교육에서 페미니즘교육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 페미니즘이 어떠한 맥락에서 대안적인 세계관을 남성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위기의 해결 방안으로 교육을 제시하는 데 교육보다 민주적 가치를 못 받아들이는 게 더 문제가 아닌지,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을 효과적으로 정화하고 적폐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지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발표와 토론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분명했다. 민주주의가 제도나 선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만으로는 권위주의의 유혹과 극우 포퓰리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없으며, 일상의 정치적 주체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같은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은 모두의 정치적 노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청소년이 그려낸 민주주의 한마당’

제3회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한마당

이보람 | 민주공원 시민홍보팀 홍보·기록

8월 30일 토요일, 민주공원에서는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한마당(이하 ‘상상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상상한마당은 주체적 활동을 지향하는 청소년 동아리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민주공원은 지난봄 공모를 통해 13개 동아리를 선정하고, 행사설명회, 기획위원회, 청소년 워크숍 등을 통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9개 동아리가 교육박람회 부스를 운영하고, 4개 동아리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온새미학교 풍물동아리 「북치GO장구치GO독도GO」의 길놀이로 행사가 열렸고, 이어 동아리 대표들이 각 동아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입장했습니다. 각 동아리 소개가 끝난 후, 9개 동아리의 교육박람회 부스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임머신(부산대사대부고)」는 ‘응답하라1910-타임머신을 타고 그날의 역사 속으로’라는 주제로 대표적 역사왜곡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임과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want(부산진구가야청소년센터)」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관련 인물 퀴즈와 토론을 진행했고, 「시그마(성지여자고등학교)」는 민주화운동에서 학생들이 끼친 영향에 대한 인식조사와 청소년 정치참여 찬반토의, 민주주의 비즈팔찌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다시민주주의(만덕고등학교)」는 사회적 참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와 연결하는 전시, 영상 등을 선보였고 역사적·사회적 아픔을 기억하며 연대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행복연구반(부산고등학교)」은 ‘다채로운 하루-다양한 우리의 색깔’을 주제로 다문화 이해하는 퀴즈와 반지·모자이크 만들기 체험을 마련했습니다. 물금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제과제빵동아리 「새콤달콤」은 세계여성의 날을 알리고 직접 만든 장미 쿠키를 증정했으며, 웹툰동아리 「알록달록」은 청소년현장을 알리는 직접 그린 웹툰 전시와 게임을 진행하고 참가자들에게 웹툰 핀뱃지를 나눠주었습니다.

부산영상예술고 사진동아리 「여백」은 부산 민주항쟁 관련 공간을 방문해 촬영한 사진을 전시했으며, 생태동아리 「초록물고기(반송중학교)」는 주민 인식 조사와 생태 다큐 촬영 등을 통해 반송천에 서식하는 생물을 소개하고, 수달의 흔적을 발견한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교육박람회 부스 운영이 끝난 뒤, 큰방(중극장)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악바리(만덕고등





학교)는 민주주의를 노래한 자작곡 '기다린 길' 밴드 공연을 선보였고, 전문청소년극단 눈동자는 SNS, 성형, 인터넷 방송 등 학생들의 관심사를 주제로 한 관객 참여형 연극을 올렸습니다. '배꽃에 달빛이 비추어 더 아름답게 빛나는 밤'이라는 뜻을 가진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 동아리 「이화월백」은 아름다움과 감정을 담은 춤으로 관객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행사 시작을 열었던 「북치GO장구치GO독도GO」는 민주주의 세상을 외치며 신명나는 풍물 공연으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이어진 시상식에서 모든 동아리는 준비한 프로그램에 맞는 상을 받아 서로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최우수상(부산광역시교육감상)은 「초록물고기」가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2년 연속 상상한마당에 참여해, 지난해에는 장산의 생물과 직접 발견한 물고기를 소개했고 올해는 반송천을 중심으로 수달의 흔적을 찾는 활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행사 종료 후 축하 인사를 받은 동아리 대표 박민준 학생은 “내년에는 용을 발견해서 올게요!”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13개 동아리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참여의 힘을 보여주며 민주공원 곳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행사 중간, 냇기림마당*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준비된 물놀이를 장난 가득한 웃음소리와 함께 즐기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니, 문득 민주열사들이 바랐던 '민주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미래세대가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제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그런 '민주 세상'이 그날 오후 민주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지난 5개월의 시간이 함께한 청소년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

*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열사들을 기리며, 그 뜻을 아로새기는 공간

민주주의기록관 둘러보기

‘부산 시민의 민주주의 기록을 지키는 보존서고’

박지원 | 민주공원 학술사료팀 기록물관리

부산시민의 기억과 기록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주주의기록관이 개관 준비 중입니다. ‘기록관’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소장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한 보존서고와 수장고를 가장 중점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부산시민의 민주주의 기록보존소

민주주의기록관은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기억과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 기록관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민주주의기록관은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기증받아 보존하는 일종의 ‘매뉴스크립트 보존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록물은 물론 민간 기록물까지 아우르며, 문서·간행물·오디오·사진·박물·미술작품·구술자료 등 여러 유형의 사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부산’에 걸맞게 지역 민주화운동 기록을 다수 소장하고 있으며, 4대 항쟁은 물론 촛불항쟁 관련 자료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부산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기증받은 학생·노동·여성·환경·평화운동 등 다양한 부문운동의 기록도 함께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서고 둘러보기

보존서고는 단순히 기록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분류, 편철, 정리, 정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록물의 안전을 위해 인가받지 않은 직원과 관람객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공간입니다.

면적 236.09m²(약 71평)의 보존서고에는 자동식 모빌랙 74기(단수 기준)를 설치해 수동식 모빌랙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변화에 민감한 기록물을 위해 온·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유해생물 예방 효과가 뛰어난 오동나무 원목 서가를 도입하여 최적의 보존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방재와 향온·향습 등 적정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이소 보이소 사랑해주이소

기존 민주항쟁기념관에 있던 기록물을 민주주의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

* 특정 기준과 의도, 목적에 따라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한 기록물을 보관하는 공간을 의미함.



보존서고 서가
보존서고
오동나무 원목 서가



다. 기록물을 손상 없이 안전하게 이송하고, 서가 재배치를 통해 다시 한 번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물과의 교차검증이 필요했으며, 전수조사 수준의 대공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훈증작업을 시작으로 기록물을 유형별 임시서가에 배치하고, 분류된 기록물을 해철하여 보존상자에 편철한 뒤 색인목록을 부착했습니다. 작업이 완료된 보존상자의 위치 정보는 시스템에 탑재되어 전자적 기록물 관리가 실현되며, 물리적 기록물은 훼손이나 황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이처럼 기록물이 보존서고에 단순히 보관되지 않고, 이용자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업무입니다.

사소한 개인의 기억과 기록도 훗날 중요한 기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생산된 맥락을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보다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기록관은 민주화운동 계승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출처로부터 기록물을 기증받고 수집하고자 합니다. 기증·수집된 기록물은 분류체계와 기록물 DB 구축을 통해 이용자가 보다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기록관이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기록을 보존·활용하며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

마침내 목이 트이다 : 통일·자주·평화의 목소리

김호민 | 민주공원 학술사료팀 사료연구

“ '기억에서 기록으로'에서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소장한 부산지역 민주화 운동 관련 사료를 소개합니다. 소개된 사료는 하반기 개관 예정인 민주주의기록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의 날이자 남북분단의 날이었다. 이후 분단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고착되었고, 독재정권은 겉으로는 통일과 자주, 평화를 주장했지만, 시민들의 같은 요구는 '친북용공' *으로 매도하며 탄압받았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시민들은 통일과 평화를 공론화할 수 있었고, 같은 해 8월 15일 수산대(현 국립부경대)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제'는 부산에서 광복절의 관변적 분위기를 바꾸었다. 이 행사를 주최·주관·후원한 '부산민주시민협의회', '통일제 준비 부산민중문화운동 연합',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등 단체들은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통일·자주·평화 운동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었다.

『민주부산』제9호, 『통일의 함성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1987년 8월 15일,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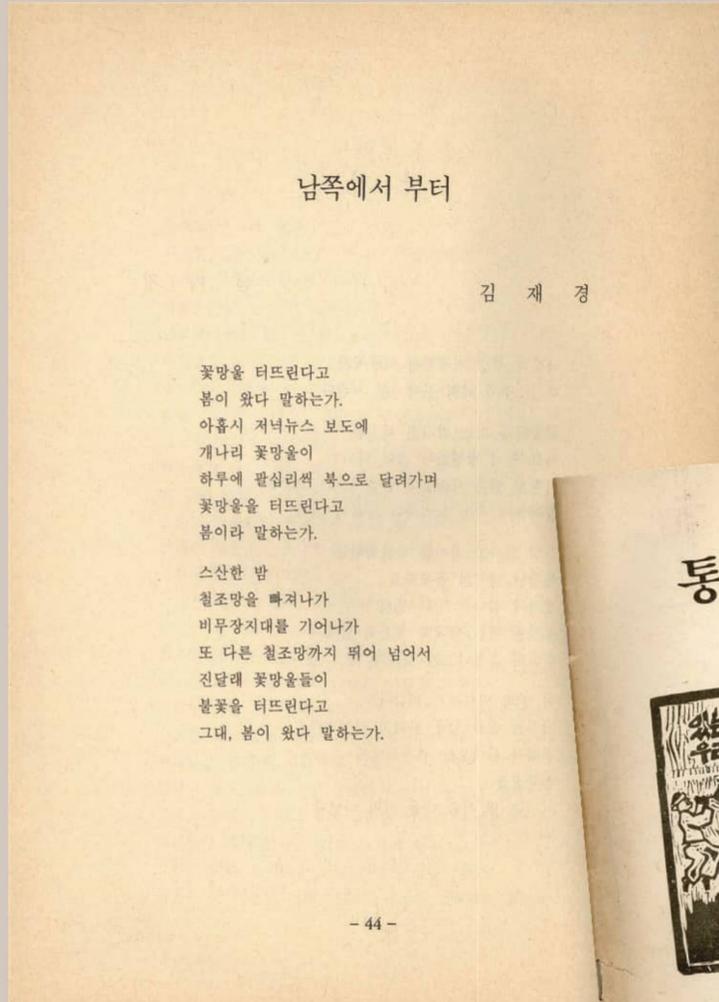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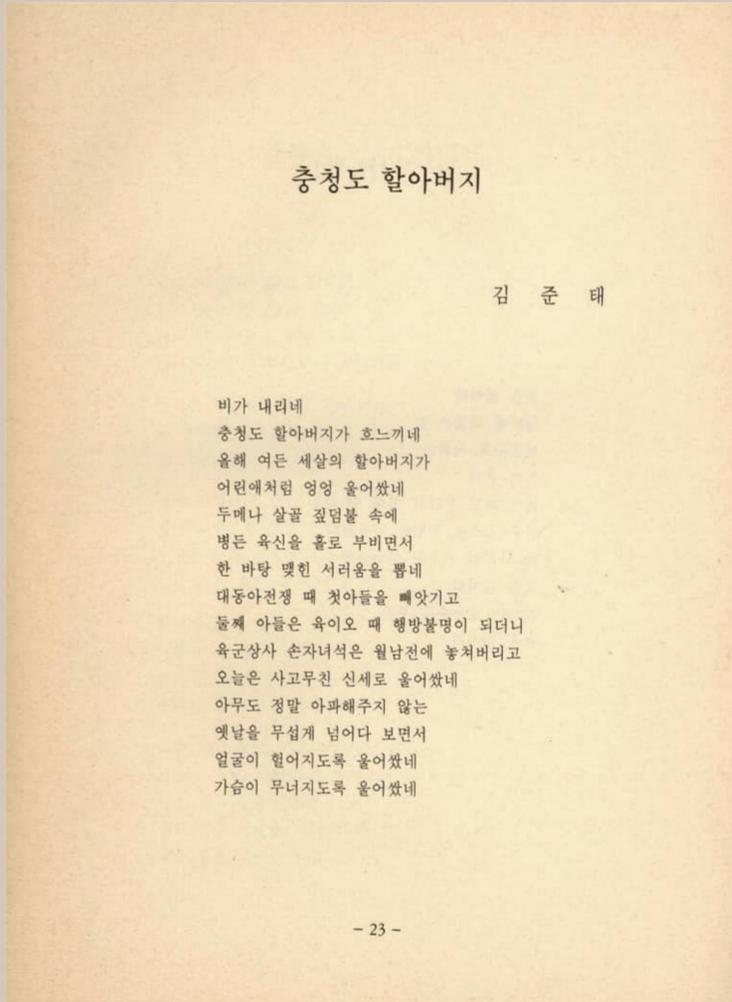
'8·15 민족통일제'에 이어 8월 22~23일 열린 '통일문화제'에서는 시화 전시회, 열림굿, 마당극, 민요 강습, 노래극, 대동놀이, 맺음굿,

대자보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주요 행사 중 하나로 당시 민중미술의 주요 표현 기법이었던 판화 판매가 있었으며, 제작된 판화들은 통일·자주·평화 정신을 담아 시민들과 공유되었다. 또한 발간된 『통일문화제 시화전作品集』

* 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북한을 추종하거나 공산주의자와 연계된 사람으로 몰아 탄압할 때 사용한 표현.

에는 분출하던 통일·자주·평화 정신이 기록되었고, 김준태의 시「충청도 할아버지」는 분단의 고통을, 김재경의 시「남쪽에서부터」는 통일이 오기 전까지 진정한 봄은 오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1987년 8월 15일 광복 42주년을 맞아 열린 '8·15 민족통일제'와 '통일문화제'는 시민과 학생들의 통일·자주·평화 정신을 다양한 형태로 남겼으며, 광복 80주년을 맞은 오늘에도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 있다. 



김준태, 「충청도 할아버지」, 『통일문화제 시화전 작품집』, 1987, p.23.
 김재경, 「남쪽에서 부터」, 『통일문화제 시화전 작품집』, 1987, p.44.
 『통일문화제 시화전 작품집』, 1987.



부산미술운동연구소(김상화), <아... 밤녘의 하늘 성조기만 나부껴 ~>
 (통일문화제 당시 판매된 판화는 아니지만, 시대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비슷한 시기 부산지역 민중미술계에서 제작한 판화 작품이 있다.)

해방 80주년. ‘일본 아동기본법에 조선학교 적용을 촉구하는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김지운 | 다큐멘터리 ‘항로 - 제주, 조선, 오사카’, ‘차별’ 감독,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운영위원장

올해는 일제강점기 해방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종식과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로 해방 80주년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외면받고, 일본 정부에서는 차별받고 있는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다. 바로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학생들이다.

80년의 차별을 이겨내며 지켜가는 민족교육, 조선학교

조선학교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일본에 남게 된 60만 명의 재일조선인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며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국어강습소’가 그 시작이다. 재일조선인 잡지 <이오(イオ)>의 연재물 <발생기의 조선학교>에 따르면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국어강습소는 1945년 9월 6일 효고현 히메지시 시카마구 아가미야의 국어강습소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지역의 한 동포가 자신의 집에 16명의 어린이를 모아놓고 국어강습을 시작했고, 일주일 후인 9월 13일에는 도쿄 아다치의 국어강습소도 문을 열었다. 이후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의 결성과 함께 “힘 있는 사람은 힘으

시코쿠조선초중급학교 학생들. 1947년 미쓰야마 조선인학교로 문을 연 시코쿠조선초중급학교에는 현재 8명의 학생이 민족교육을 받고 있다.



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일본 땅 곳곳에 세워진 ‘국어강습소’는 조선학교로 체계를 잡아나갔다. 2년 후인 1947년에는 조선초등학교 541개교, 중등학교 22개교, 학생 수 6만여 명, 교원 1,400여 명의 민족교육기관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1948년 연합군총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 of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와 일본 정부는 ‘사회주의 세력의 확산 방지’와 ‘민족교육 금지’를 이유로 ‘조선학교 폐쇄령’을 내린다. 이에 효교현을 시작으로 일본 전역의 재일조선인들과 학생들은 격렬히 투쟁한다. 바로 ‘4·24 한신교육투쟁’ 혹은 ‘4.24 민족교육투쟁’이라 불리는 교육투쟁이다. 전후 일본 최대의 대중운동인 ‘4·24 한신교육투쟁’으로 3천 명 가까운 재일조선인이 체포되고 부상자가 150명이 넘었다. 이 과정에서 16살 김태일 소년이 뒷머리에 경찰의 총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후 조선학교는 1949년 10월에 내려진 ‘제2차 조선학교 폐쇄령’으로 모두 폐교되고, ‘공립조선인학교’, ‘일본학교의 분교’, ‘일본학교 내의 조선인학급’ 등으로 분화되며 민족교육의 자주권을 잃게 된다.

조선학교의 중흥기, 끊임없는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정책

1955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의 결성과 1959년부터 시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귀국사업’을 계기로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한 조선학교는 1960년대 160여 개의 학교와 5만여 명의 학생들이 민족교육을 받게 되면서 중흥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일본은 이후에도 JR통학권 학생할인 미적용, 조선고급학교의 전국 스포츠 공식대회 출전 금지, 대학입시 자격 미부여 등 조선학교와 학생들에



◀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 제외 반대 거리 퍼레이드 중인 히로시마 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 2013년 1월 도쿄, 아이치 조선고급학교의 소송을 시작으로 오사카, 히로시마, 규슈로 이어진 고교무상화 소송은 2017년 7월 오사카 1심 판결에서는 승소했지만 2022년 9월 규슈 조선고급학교의 대법원 상고기각을 끝으로 모두 패소했다.

▼ 2019년 2월 기타규슈시 고쿠라에서 열린 ‘함께해요 콘서트, 조선학교가 좋아요’ 공연. 이 날 공연에는 부산의 예술가 20여명과 후쿠오카조선가무단, 일본 공연단 그리고 후쿠오카, 규슈, 야마구치 조선학교 학생 150여명이 함께 공연에 참가했다.



대한 차별정책을 실시한다. 이런 차별정책들은 동포들과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소송과 투쟁으로 많은 부분 해결이 됐지만 전국 스포츠 공식대회 출전의 경우 정식 출전 자격이 아닌 준출전 자격, 대학입시의 경우는 입학심사기준을 대학의 재량에 맡겨놓는 등 여전히 차별의 불씨가 남아 있다.

한편, 2012년 말 시작된 2차 아베 정권은 ‘고교무상화정책’에서 조선학교 제외, ‘유치원·보육원 무상화정책’에서 조선유치원을 제외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사이마타 유치원에 마스크 미지급, 학생 1인당 1대의 태블릿 PC를 지원하는 ‘기가인터넷스쿨 정책’에서 조선학교 제외,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학생 긴급급부금제도’에서 조선대학교 학생만을 제외하는 등 끊임없는 차별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조선학교는 50여 개교, 학생 수는 3,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일본 아동기본법에서 조선학교는 배제

일본 정부는 2022년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고 2023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아동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가정청도 신설했다. 「아동기본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교무상화 제도’ 제외, ‘유치원·보육원 무상화 제도’ 제외, ‘교육 보조금 제도’ 제외, ‘무상급식제도’ 제외 등 조선학교에 대한 수많은 차별은 여전하다.

일본 사회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조선학교 아이들을 보호하고 배움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배제를 항의하며 시작된 도쿄의 금요일 행동과 오사카의 화요일 행동이 500회가 넘었고, 일본과 한국, 해외동포 시민단체들도 이에 연대하며 조선학교 학생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현재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80퍼센트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며 나머지는 조선적(식민지 이전의 조선국적), 또는 일본 국적으로 추정된다. 이미 대한민국 법무부는 2010년 조선적을 우리 국민이

일본아동기본법 조선학교 적용 촉구 서명운동 기자회견-조선학교 차별반대 NGO 국제연대 한마당 in 부산





일본 아동기본법에 조선학교 적용을 촉구하는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 포스터 (서명에 동참하실 분들은 포스터 하단의 QR코드를 스캔 후 서명)

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또한 「재외동포기본법」은 국적과 관계없이 한쪽 부모가 한국 국적을 소유한다면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의 국민이며 동포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 이제껏 단 한번의 성명이나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와 일본 아동기본법에 조선학교 적용을 촉구하는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

조선학교 차별 문제는 과거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UN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등이 일본국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선학교 차별에 대한 시정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단 1cm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조선학교 국제네트워크는 2024년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해외 단체들과 국제연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4월 〈조선학교 차별반대 NGO 제1회 국제연대 한마당〉을 개최하고 이 대회를 통해 결성했다. 올해 4월에는 부산에서 〈조선학교 차별반대 NGO 제2회 국제연대 한마당〉을 개최하며 ‘일본 아동기본법에 조선학교 적용을 촉구하는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국제 인권 규범의 기준에 따른 정당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아동기본법」을 시행 중인 일본 정부의 이중성을 비판하며,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첫 행동이다. 서명은 올해 9월 유엔총회와 내년 유엔인권위원회 그리고 일본문부과학성에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내외 단체 및 세계 시민들과 연대함으로써 조선학교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조선학교와 학생들은 혐오와 차별,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식민과 분단이라는 한반도 현대사의 살아 있는 증거이자 평화와 공존을 위한 상징이다.  사진=필자 제공

◆ 일본 아동기본법 조선학교 적용 촉구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 주최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in Solidarity with Korean Schools)
- 김복동의 희망(한국) / KIN 지구촌 동포연대(한국)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한국)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한국)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한국) /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네트워크(일본) /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 · 후쿠오카 야마구치 연립협의회(일본) /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에 반대하는 연학회(일본) / 조선학교와 민족교육의 발전을 추구하는 모임 · 교토 시가 ‘꽃봉오리’(일본) / 우리학교와 함께하는 동포모임(미국) / 재독조선학교 후원회(독일) / 한민족 유럽 연대(독일) /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호주)

대한민국민주주의의 빛과 그림자

강동근 | 민주공원 자원활동가

민주공원 대학생 자원활동가들은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창원 일대로 부마민주항쟁 관련 공간을 탐방하며 민주주의 역사를 익히고 그 가치를 함양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건축학과를 졸업한 나로서는, 다른 전공을 공부한 사람들과 답사를 가면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 시선을 공유하는 것이 특히 재미있다. 3년간 자원활동가를 하면서 부산, 광주, 제주 등 민주주의 관련 장소의 건축물을 답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건축물 공사가 진행 중이라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기대하며 시간을 보냈다. 드디어 이번에 완성된 그 공간에 다녀왔다.



시대와 사람을 보는 듯한 투명, 반투명, 불투명 재료의 건축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외관은 시원해 보이는 색의 재료와 유리 등을 사용해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준다. 또한 건물에는 보이드(Void)와 솔리드(Solid)* 공간이 조화롭게 섞여 있다. 하부는 일부 중앙광장으로 구성되어, 건물 상부가 공중에 떠 있는 구조를 이루며, 건물 내부가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처럼 느껴진다. 시민이나 방문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부뿐 아니라 외부 공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이 느껴진다. 불투명한 흰 재료로 만든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라는 글자와 별들이 이어진 듯한 로고를 보며 건물에 들어서게 된다.

다양한 동선의 내부 공간들

내부로 들어서면 로비 홀이 있고 층별 안내가 있다. 1층은 '커뮤니티 문화 공간'으로, 이용자들에게 시설을 안내하는 공간이 주로 마련되어 있다. 야외광장을 통해 빛의 계단을 이용하면 3층 상설전시실로 올라갈 수 있다.

* 보이드(Void) 공간은 비워진 공간을, 솔리드(Solid) 공간은 채워진 공간을 의미함.

2층은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된 민주 홀의 계단형 다목적 공간을 통해 접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학습 공간(교육실, 도서관)과 전시 공간(지역 특화 전시실, 다목적 전시실), 보조 공간(수유실, 휴게 공간)이 갖춰져 있다.

3층에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상설전시실(프롤로그,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에필로그)과 아카이브 공간이 있어 민주주의 관련 다양한 전시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외부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나 옥상정원은 현재 준비 중으로 관람이 불가하다. 3층 상설전시실 끝에는 1층의 빛의 계단과 연결되는 공간이 있다.

보이드(Void) 공간과 솔리드(Solid) 공간을 이용한 빛과 그림자 조절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은 무더운 여름을 겪는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공간을 제공한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내뿜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빛을 모아둔 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빛과 그림자, 그리고 색을 찾아볼 수 있다. 로비 홀을 통해 건물에 들어서면 민주 홀의 알록달록한 의자들과 천장에 달린 원형 설치물이 눈에 들어온다. 1층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반투명 원형의 색들이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다. 잠깐 구경한 뒤, 상설전시실 전시 해설을 듣기 위해 3층으로 이동했다. 3층에서는 바다 방향으로 조망 테크가 있어 바다와 돌섬을 볼 수 있다. 3층 복도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적힌 벽면이 있다. 이 벽면을 포토존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밝은 공간에서 어두운 공간으로의 '암순응'

상설전시실 입구에는 음료 보관대와 전시 안내도가 있었다. '민주 성지'라는 글귀를 시작으로 전시를 관람했다. 미디어 전시가 많았기에 해설과 함께 그 시대로 돌아가 당시 겪었을 상황을 상상하며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프롤로그' 공간에서는 민주주의를 별로 비유해서 궤적을 보여주는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연혁이다. 맞은편에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봄, 파도, 은하수 등 과거 그들이 꿈꿨던 아름다움 희망을 영상화하는 듯하다. 잠시 비치된 의자에 앉아 감상하였다.

다음은 '3·15의거'를 다룬 공간이다. 빔을 통해 벽면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시작인 3·15의거 관련 영상이 재생된다. 전시실 벽면 일부는 무차별 실탄사격이 가해졌던 무학초등학교 담장을 따왔다. 단순히 벽면에 영상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직접 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부마민주항쟁’은 오디오 청취를 통해 당시 상황을 들려주는 참여형 전시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항쟁이 일어난 위치를 표시해 둔 모형과 조명이 눈에 들어온다. 부마항쟁과 관련된 4개의 상황을 오디오로 청취할 수 있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높낮이가 되어있다. 벽면에는 마산 지역 부마민주항쟁 전개 과정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6·10민주항쟁’ 공간에는 여러 개의 영상과 거울로 이루어진 구역과 천장에 매달린 설치물 등이 눈에 띈다. 영상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 영상과 시위참여자들에 대한 사진 등이 흘러나왔고, 그들을 보는 우리의 모습이 거울로 반사되어 마치 그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는 듯한 묘한 긴장감을 자아낸다. 또한 천장에 매달린 설치물은 시위 당시 배포된 성명서 등의 종이를 뿌리듯이 설치되어 있어 그 시대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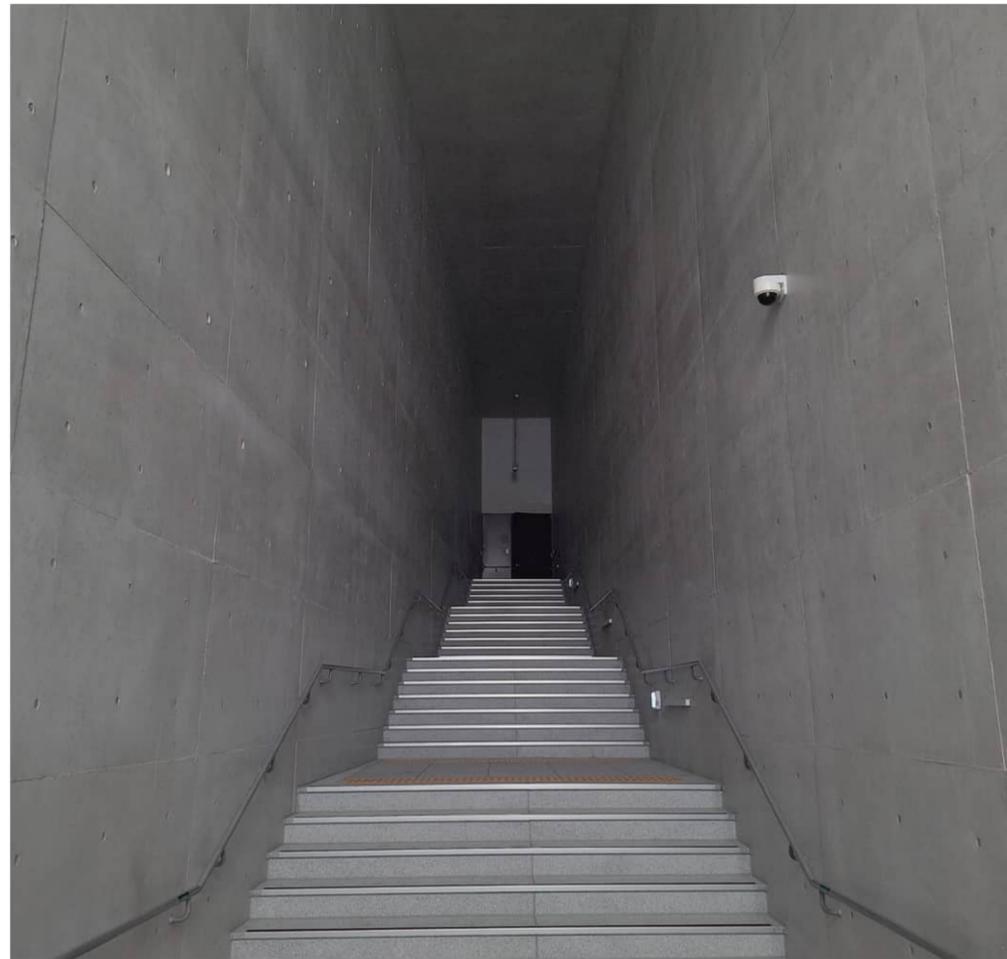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공간에는 별의 바다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들이 꾸었을 꿈들, 작은 소망들이 모여 거대한 바다로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과거의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 빛들이 현재의 우리에게, 더 나아가 미래의 또 다른 그들에게 전해지는 느낌이다.

어두운 공간에서 밝은 공간으로의 ‘명순응’

에필로그를 지나 ‘빛의 계단’으로 내려가는 공간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든 곳이다. 재료는 노출콘크리트와 유리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경건함이 느껴진다. 천장에 뚫린 창으로 내려오는 빛과 벽을 어루만지는 반사된 빛을 보고 있으면 감탄을 넘어 침묵에 이른다. 전반적으로는 어두운 공간이지만, 한 줄기 빛은 마치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빛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빛에 시선을 빼앗긴 채 계단을 내려오다 뒤를 돌아보면, 문으로 향하는 계단이 위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좁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그들이 원했던 미래가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미래로 나아갈수록 계단은 좁아져 오르는 이들의 수는 줄어들고, 높아지는 계단은 점점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게 만들지만 결국 목표에 이르게 된다.

계단을 내려오면, 조명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기를 반복하는 작품을 볼 수 있다. 그 불빛은 아래에 반사되어 더 많은 빛이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수많은 존재가 빛을 내다 사라지고, 또 다른 존재가 빛을 내며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불러내는 작품이다.

상설전시실 관람을 마친 뒤 나머지 공간을 둘러보았다. 3층 아카이브 공간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다. 2층에서는 1층에서 올라다보았던 반투명한 원형들이 겹쳐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역특화 전시실에서는 마산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한 바다의 테마로 나누어 관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야외 조경과 실내 조경을 찾아보는 즐거움이 있으며, 비상 상황을 대비한 피난 안내도와 소방 장치를 살펴보는 재미도 있다.



빛과 색이 조화로운 공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이 공간은 앞서 말했듯,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내뿜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빛을 모아둔 소중한 곳이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다른 형태와 크기의 빛이 존재한다. 빛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향이 작은 것도 아니고, 빛이 많다고 해서 그 영향이 큰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이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빛을 내뿜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빛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뿐이다.

현재라는 밝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두운 그대들의 모습을 본다. 어쩌면 과거의 어두운 시대 속에도 밝은 그대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들이 어둠을 흡수하고 밝음을 내뿜었기에 지금의 현재가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공간을 방문하며 우리는 어떤 형태와 크기의 빛을 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

시범운영 중인 창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은 극우성향 인사의 운영자문위원회 참가와 함께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독재 실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등 부실한 전시 콘텐츠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 창원지역 85개 시민단체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제대로 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를 지난 8월 6일 결성하고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편집자주>



댄스 프로젝트 에게로, 치유와 성장의 몸짓으로 민주공원에 서다

이보람 | 민주공원 시민홍보팀 홍보·기록

댄스 프로젝트 에게로(Dance Project EGERO, 이하 '에게로')는 2014년, 언어 이전의 느낌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다양한 방식을 탐구하고자 부산에서 창단된 현대무용단체다. 민주공원과의 인연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에게로는 2019년 부산문화회관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2021년까지 민주공원 상주단체로 활동했다. '무거운 짐 가방 때문에 멈춰 선 한 여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작품 <회귀>를 시작으로 <마주하다>, <수구루지> 등 3년간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관객과 만났다. 2025년, 현재 '씨어터링크 지원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해당 사업에 선정된 에게로는 민주공원과 또 한 번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앞으로 2027년까지 3년간 '치유와 성장'을 주제로 한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에게로 이용진 연출가는 민주공원과 함께할 3년간의 여정과 공연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전했다.

“민주공원 소극장은 부산 춤판의 메카입니다. 말 그대로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초대 관장님 이후 다양한 분들이 이곳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주공원이라는 곳이 기념적 의미가 크고 공연, 대관 사업이 주된 곳이 아니다 보니 공연장의 시설이 낙후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험적인 춤 작업을 시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현재 부산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 여전히 이곳은 부산 춤꾼들에게 사랑받는 공연장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장소에 상주하며 공연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도 큰 행운이며 자부심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씨어터링크 지원사업은 단체가 민주공원과 함께하는 마지막 3년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민주공원 소극장은 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 찾게 될 곳이지만, 동등



* 공연장과 공공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을 확대하고, 공연예술단체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창작품을 개발하고 우수작품 발표를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Dance Project EGBRO

하게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가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로는 마지막입니다. 향후 공연장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지만, 그전까지 저희가 머무르는 3년 동안은 ‘민주공원 소극장은 춤 공연을 관람하기에 참 좋은 극장이다’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기공연은 ‘치유 3부작 시리즈’로 구성된다. 2025년에는 ‘일상의 치유’, 2026년에는 ‘내면의 치유’, 2027년에는 ‘연대적 치유’를 각각 주제로 한다. 그 첫 번째 무대인 <염증>이 지난 6월 14일과 15일 민주항쟁기념관 작은방에서 관객과 만났다. <염증>은 생존을 위한 생체 반응인 염증을 신체적·정서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그 개념적 구조를 해체하여 현대인의 삶과 인간 본연의 괴로움을 현대무용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어 두 번째 이야기인 <고립환상>은 2026년 4월 공연될 예정이다.

정기공연과 더불어 기획공연도 함께 선보인다. 첫 기획공연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민주공원을 찾은 이들을 위한 <사자·Who>다. 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단체 ‘민악 솟대’와 함께 전통 연희와 현대무용을 결합한 이 공연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다. 이어 9월 20일에는 민주공원 예술놀이터 <2025 공원춤판>에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스트리트댄스, 전통 연희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을 한 무대에 올려 관객들이 춤의 스펙트럼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무용공연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가 됐다.

다가오는 11월에는 기획공연 <춤작가 양성 프로젝트 몸 틀: 네 가지 시선>이 예정돼 있다. 네 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네 편의 현대무용 단편을 무대에 올리는 자리다. 이 공연은 무용수가 안무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의 신진 안무가를 발굴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다. 각자의 이야기를 몸짓으로 풀어내는 창작 여정에는 서울·대구·부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멘토링 코치들이 함께한다. 🦋

공연 안내

몸 틀: 네 가지 시선

11월 22일 17시

11월 23일 15시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작은방(소극장)

예매 안내

10월 중 안내 예정

(민주공원 누리집 참고)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

—부산자주평화실천단 회원 참여기

유한별 | 민주공원 시민홍보팀 시민·회원사업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온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나라가 위태로운 시기에는 어김없이 교과서나 위인전에 실린 유명한 장수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수많은 백성들이 칼과 낫, 곡괭이와 기왓장을 들고 일어나 싸워왔다. 들불같이 일어났던 항일투쟁도 그러했고, 미군 장갑차 사고에 촛불을 들고 온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시민들도 그러했다. 이 땅의 자주권을 지켜내고 말겠다는 ‘의병 정신’이 우리의 핏줄에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얼마 전 트럼프 정부가 우리에게도 25%의 상호 관세 서한을 날려 왔을 때, 많은 시민들이 이 ‘의병 정신’에 입각한 뜨거운 감정을 표출했다. 나라 대 나라로서의 동등한 외교 관계가 아닌 협박과 굴종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관계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7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부산자주평화실천단’*(이하 ‘실천단’)은 바로 이런 들끓는 분위기

* 7·27정전협정일을 맞아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부산시민의 실천 모임



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관세 폭탄을 운운하며 방위비분담금 13조 강요, 국방비 132조 대폭인상을 협박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500여 명의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실천단은 폭염에도 굴하지 않고 시가지 행진 및 다양한 대시민 선전 활동을 통해 부산 시민을 만났다.

한마음으로 휴가를 반납한 사람들

26일 첫날에는 부산시민공원 백산홀로 들어서니 하늘색 단체복을 입은 실천단 참여자들이 가득했다.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 말, 이 소중한 주말 이틀을 실천단 활동으로 헌납한 사람이 무려 500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워지는 광경이었다. 단체 일정의 시작은 자주평화실천단 선서문을 함께 낭독하는 실천단 발대식과 퀴즈 대회로 등으로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서면 1번가 거리에서 짧은 여는 집회 후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미 55보급창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각 단체들에서는 자체적으로 재미있는 문구를 적은 손피켓이나 대형 현수막, 등배너, 깃발, 비눗방울, 짹짹 응원 소품, 저승사자 분장 등 다채로운 행진 소품을 준비해왔다. 각자 알록달록한 소품을 들고 음악과 구호에 맞추어 마치 페스티벌처럼 신나는 분위기로 행진을 진행했다. 시민들은 인도에 멈춰서서 행렬을 지켜보며 응원을 건네기도 하고, 흔쾌히 유인물을 받아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다. 생각보다 뜨거운 시민들의 반응에서 미국 트럼프 정권이 우리에게 자행하는 경제 약탈과 전쟁기지화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자주평화실천단 선서문

우리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견결히 반대하고, 대리전쟁을 획책하는 세력들에 맞서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 하나. 우리는 전쟁유도 내란수괴를 파면시킨 빛의 항쟁 정신을 계승한다.
- 하나. 우리는 이 땅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기도를 파탄내고, 평화를 수호한다.
- 하나. 우리는 트럼프의 약탈정책을 거부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견결히 투쟁한다.
- 하나. 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고 한일군사동맹을 저지하기 위해 앞장선다.
- 하나. 우리는 '전쟁동원 가능한 독재체제'를 꿈꾼 내란세력들을 단죄하고, 자주와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를 건설하는 데 전력한다.
- 하나. 우리는 친일친미 노예근성에 찌든 극우집단을 제압하고, 자주의식이 꽃피우는 사회를 건설한다.
- 하나. 우리는 자주평화실천단답게 민중을 위한 고생을 낙으로 여기며 언제나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한다.

2025년 7월 26일
부산자주평화실천단 일동



주한 미 해군'기지인가, 해'적'기지인가

1시간 30분가량을 뜨거운 아스팔트를 따라 흥겹게 구호를 외치며 걷다 보니 어느새 미 55보급창 앞에 도착했다. 서면 변화가와 그리 멀지 않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22만 3천m²에 달하는 부산시민공원 부지의 절반 가까운 넓은 땅.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조성된 55보급창은 해방 후 미군이 인수하여 여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부지 반환은커녕, 작년 발생한 화재에도 불평등한 SOFA협정 때문에 경찰 조사조차 하지 못했고 합동감식 결과도 비공개로 처리했다. 담장에는 영어로 안내 문구가 붙여져 있었고 경찰이 기다란 그물망을 설치해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었다. 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정문에서 '폐쇄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끝으로 첫날 실천단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27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활동이 시작되었다. 실천단의 절반은 해운대 구남로와 백사장 일대에서 선전 활동을 하였고, 나머지 노동실천단과 여성실천단은 남구 용호동 일대와 이기대를 중심으로 선전 활동을 진행했다. 유달리 화창한 날씨에 땀을 비 오듯 쏟아지는 땀방울을 흠치며 이기대 등산길을 올라 '신냉전 약탈자 트럼프 OUT' 구호가 적힌 리본을 달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가장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 각 지역에서 활동을 마친 실천단들이 백운포 고갯길에 모두 모였

다. 어제보다 더욱 기세를 높여 백운포 주한 미 해군사령부 앞까지 행진해 나갔다. 행진 행렬을 따라 고갯길을 내려가다 보니, 해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한 해변이 내려다보였다. 파란 하늘과 넘실거리는 바다가 어우러져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이 바다를 주민들을 위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2016년에 몰래 용산에서 옮겨온 주한 미 해군사령부에 무상임대로 무기한 내어주고 있다.

주한 미군과 트럼프는 과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그러나 굴욕적인 관세 협박으로 경제 약탈을 노골화하는 최근의 행태를 보면, 그들의 의도는 의심스럽기만 하다. 미 해군기지 역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해적처럼 자원을 수탈해가는 거점으로 비친다. 이에 부산자주평화실천단은 마지막 상징 행동으로 미 해군기지 앞에 ‘주한 미 해적사령부’라는 이정표를 달았다. 그 행동이야말로, 우리가 품었던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이었을 것이다.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지만, 스스로 내어준 것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우리 땅의 자주와 평화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뜨거운 열정으로 실천단에 함께한 회원들의 소중한 참여기를 소개합니다

“

이*진 회원

저는 이번 부산자주평화실천단에 노동실천단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파트와 주택,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트럼프 정부의 만행을 알리는 유인물을 부착하거나 나눠드리는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동맹국이라는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체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라던가 ‘그렇다고 주한미군을 뺄 수는 없으니까’ 같은 이유로 넘어가기에는 미국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상전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가 강제로 빼앗아 사용하던 경마장 자리를 그대로 미국이 접수했던 하야리아 부대가 우리 품으로 반환되어 부산 시민공원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부산 시민의 꾸준한 기지 반환 운동이 없었다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트럼프에게 강력히 외친 이 행동이,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조금 더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



“

소*희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자주평화실천단 <청년, 오늘> 조장으로 참가했습니다.

자주평화실천단 첫날, 시민공원 백산홀에 들어설 때 백산홀이 정말 커서 놀랐고, 또 그 큰 강당을 가득 채운 실천단원들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청년, 오늘 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퀴즈도 풀고, 영상도 보면서 우리가 아직 미국과 우리 자주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알고, 또 실천해야겠다며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NO TRUMP를 외치며 다함께 부산 시내를 행진할 때, 지난겨울 우리를 이어준 광장이 생각나 너무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조원 중 한 명은 “여기 모인 실천단 500명이 윤파면 광장이 열렸을 때도, 줄었을 때도 늘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인 것 같아서 얼굴도 모르지만 동지로 느껴졌다”고 말하면서 “자주평화를 외치는 광장도 우리가 굳건히 지킨다면 다시 탄핵광장처럼 크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우리 땅과 목숨을 위협하는 미국과 트럼프에 맞서 청년들도 광장에서,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

정*연 회원

뉴스에서는 울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이라고 연신 주의를 당부하고 있던 지난 7월 26일~ 27일 양일간 부산자주평화실천단 활동을 다녀왔다. 지난겨울을 거리에서 빛의 항쟁을 이어온 덕분에 우리는 내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내란 세력 척결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고, 트럼프와 미국의 약탈 정책도 거부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는 있다.

첫날의 '위메리카의 운명2' 영화가 기억에 남는다. 미국의 거대한 전 세계 약탈구조가 상호 존중의 다극체제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선명함에 우리도 힘을 보태야 우리 민족의 살길도 열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날을 해운대 백사장에서 피서 온 시민들에게 선전전을 진행했었는데 외국인들까지 사진을 찍고 응원해 줘서 전 세계가 트럼프 규탄을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정~말 더웠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꼭 알려주고 시민들과 함께 외치고 싶었다.

“트럼프의 경제 약탈을 막아내자!”

“한국이 대중국 전쟁기지로 전락할 수는 없다!”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고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이다!” 🇰🇷

사진=부산자주평화실천단 제공

지금, 부마를 만나는 방법

2025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장학생 선발

우리 재단은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및 관련자의 (손)자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시민사회 활동가의 자녀를 대상으로 매년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공고, 접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명을 재단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및 관련자의 (손)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해 초·중·고교생이 각 1명이 장학금을 수여 받게 되었습니다. 재단 장학사업에 관심을 보내준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선발된 장학생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5 부마민주항쟁 학술연구지원 중간보고회

지난 7월 24일, 우리 재단 부산사무처에서 2025년 학술지원연구지원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학술연구지원사업 지원자를 비롯한 연구자와 재단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수행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10월 30일 열리게 될 부마민주항쟁 46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만날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부마문화제 - 청년 렉처콘서트 개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에게 부마의 정신과 가치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9월 20일 토요일,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부마문화제: 청년 렉처콘서트」가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관객과 함께 인기 역사 강사 최태성의 강의에 더해 부산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어쿠스틱 밴드 루즈네그라의 '유신시대 청년들의 노래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제1회 부마민주항쟁 걷기대회 추진

우리 재단은 부마민주항쟁 46주년을 기념하고 항쟁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민주적인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1회 부마민주항쟁 걷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온천천에 약 4km를 함께 걷는 행사로 10월 25일,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품을 준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우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마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응원하시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 신청

부마 민주항쟁 기념 걷기대회

2025. 10. 25.(토) 8:30~12:30
부산대학교 시월광장(넉넉한 터)

부산대학교 (약 4km) 온천천

주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산대학교  국제신문 후원  금정구



BUSAN FESTIVAL

2025년 9월 20(토) / 부산영도문화예술회관

1부(공연), 유신시대 청년들의 노래 이야기(14:00~14:30) / 밴드 루즈네그라
2부(강연), 부마 속 별별 이야기(14:40~15:40) / 강사 최태성

“강사 최태성 & 밴드 루즈네그라”가 함께하는
부마문화제: 청년 록커피콘서트

주최/후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JETA  JETA



사할린 동포와 함께하는 대동한마당

지난 6월 11일, 민주·평화·인권 국제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사할린 동포와 함께하는 대동한마당'이 부산 서면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 80여 명과 함께 민주·평화·통일 집담회를 가졌습니다. '사할린 동포와 함께하는 대동한마당'은 억압과 차별의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민족의 뿌리와 문화를 지키고 있는 재외 동포들의 삶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더욱 발전적으로 상상과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민주적 과제를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단

부산여성단체연합은 평화의 소녀상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시민들의 기억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단을 모집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킴이단 참가 신청

주최 | 부산여성단체연합 | 지원 | 2025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조형물지킴이단사업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부산수요집회

8월 13일 수요일 낮 12시,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부산수요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는 "역사부정 극우내란세력 규탄한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두 개의 발언과 노나밴드 공연, 성명서 낭독, 상징행동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와 투쟁을 기억하며, 극우·내란세력 청산과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산여성단체연합은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단'을 모집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5 동아시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미래세대 희망학교

8월 5일부터 9일까지 일본 오사카, 나라, 교토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한·중·일의 초등학생 11명, 중학생 6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6명 등 정승천 교장선생을 포함해 진행자까지 34명이 함께 했습니다. 입학식을 시작으로 3개국 친구들이 첫 만남을 가지고 나라 지역의 역사 속에 우리 문화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다 함께 한국 전통 놀이인 윷놀이를 배우고 노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일본의 마츠리도 체험해 보고 반별로 '나의 평화 이야기'를 주제로 평화신문도 만들어보았습니다. 아스카 문화와 한반도, 특히 백제 문화를 살펴보기도 하고 촛불을 켜놓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날 졸업식을 끝으로 2025 미래세대 희망학교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다시 찾은 빛> 부스 참여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다시 찾은 빛'이 열렸습니다. 광

복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었으며, 민주공원에서 8월 15일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동학에서부터 민주항쟁까지, 어둠을 밝혀 온 빛의 역사'라는 주제로 광복 민중미술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광복-민주항쟁 터널북 만들기, 낱말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많은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식민지구 2025 - 우주 눈 지구 눈물〉 전시 개최

올해 열린 민중미술 전시의 세 개 섹션 중 마지막인 〈식민지구 2025 - 우주 눈 지구 눈물〉 전시가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주항쟁기념관 작은펼쳐보임방에서 열렸습니다. 식민지구라는 제목은 지구에 살아가는 수많은 종들 가운데 인류만이 지구를 식민적으로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2018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총 23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연안 습지를 우주의 시각에서 조망하며, 지구 생태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미학적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

9월 10일, 부산시의회에서 우리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부산·경남 시민단체 80곳이 연대한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해 온 전국 시민과 함께 부마민주항쟁을 포함한 대한민국 4대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동시 수록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2025 민주공원 기획공연 연극 〈숙희책방〉 상연

1980년 광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숙희책방〉이 9월 13일 민주항쟁기념관 큰 방에서 상연됐습니다. 이번 연극은 민주공원과 극단 청년극장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극단 청년극장은 충북 청주를 기반으로 40여 년간 활동해 온 연극 단체로 〈숙희책방〉은 2020년 제38회 충북연극제 대상 및 대한민국연극제 은상, 신인연기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방방곡곡 문화공감, 신나는 예술여행 등에 선정되어 전국 관객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소식과 일정 확인은 민주공원 뉴스레터 '마루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활동소식 바로가기 ▶





소식지를 읽으면 정답을 알 수 있는 십자말풀이

이번 가을호 소식지를 꼼꼼히 읽으셨다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십자말풀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가로 세로 퀴즈를 모두 채운 뒤 사진을 찍어, 가을호를 읽은 소감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보내주세요!
정성껏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5명)



	①				⑤			⑨
	②							
			④				⑧	
③								
				⑥	⑦			



소식지 만족도 조사



카카오톡 공식채널

카카오톡 공식채널로
민주공원 소식지에 대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소식지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난 호 정답 및 정답자

김O용, 김O수, 김O순, 박O호, 이O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호 정답은
카카오톡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가로>

- ②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자주와 평화의 미래를 향한 시민OO의 표지석
- ③ 부산여성단체연합은 시민들의 기억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OOO OOO 지킴이단을 모집하고 있다.
- ⑥ 1980년 광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OOOO
- ⑧ 제1회 부마민주항쟁 OO대회가 2025년 10월 25일 개최된다.

<세로>

- ① 7·27정전협정일을 맞아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부산 시민의 실천 모임
- ④ 주체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OOO 동아리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기획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행사 'OOO 민주주의 상상한마당'
- 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분노한 부산 시민들은 강제징용OOOO을 건립했다.
- ⑦ 민주·평화·인권 국제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2025 동아시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미래세대 OO학교'
- ⑨ 일본 OOOOO에 조선학교 적용을 촉구하는 세계시민 100만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그날의 외침을 오늘의 실천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 당신입니다!



온라인
회원가입



민주화운동 정신은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나침반입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그날의 불꽃을 역사 교육으로, 시민의 연대로, 지역의 문화로 지금 이곳에서 다시 피워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잇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후원, 함께해주세요.

회원 혜택



행사, 교육활동
우선 알림과 혜택



회원 참여 활동
(체험프로그램 등)



공연, 전시 관람
무료 초대 및 특별 할인



소식지 무료 발송
(연 4회)



기관 기념품(굿즈) 증정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문의 회원사업담당 **전화** 051-750-3807 **팩스** 051-750-3810

가을비림과 함께하는

일상 속 민주주의



교육프로그램 신청



민주공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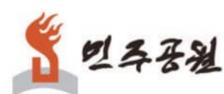
신청 | 민주공원 누리집(www.demopark.or.kr)

문의 | 민주공원 교육문화팀(051-790-7414)

운영 기간 중에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단체 신청일 경우 유선 문의 후 신청 바랍니다.
'찾아가는 부산민주역사교실'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신청** 가능합니다.

운영 중인 프로그램

- 반나절풍류(드로잉피크닉 세트 대여) 남녀노소 누구나 | 9월 16일 ~ 10월 31일
- 민주공원 '가을' 숲체험 5세 이상 개인 및 단체 | 9월 2일 ~ 11월 30일
- 민주공원 숲 스토리투어 10세 이상 개인 및 단체 | 11월 30일까지 운영
- 민주항쟁기념관 상설 전시해설 10세 이상 개인 및 단체 | 12월 28일까지 운영
- 민주공원 스토리투어 10세 이상 개인 및 단체 | 12월 28일까지 운영
- 찾아가는 부산민주역사교실 부산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기관 | 9월 ~ 12월(선착순)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 기록을 모읍니다!

2025년 하반기

민주공원 부속건물 민주주의기록관을 개관합니다.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역사 관련 기록물을
수집·보존·관리·활용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민주주의 거점 기록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바랍니다.

민주공원은 민주화 관련 문서, 사진, 소품, 민중미술작품 등
5만 6천여 건의 사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기록관에는 기존 사료와 함께
시민의 다양한 민주주의 기록을 기증받아
보존·관리·활용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기록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료 기증 절차 안내

1. 기증 신청

- 전화 : 051-750-3803(학술사료팀 사료연구)
- 전자우편 : lisophy@demopark.or.kr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카카오톡 채널

2. 기증 희망 사료 조사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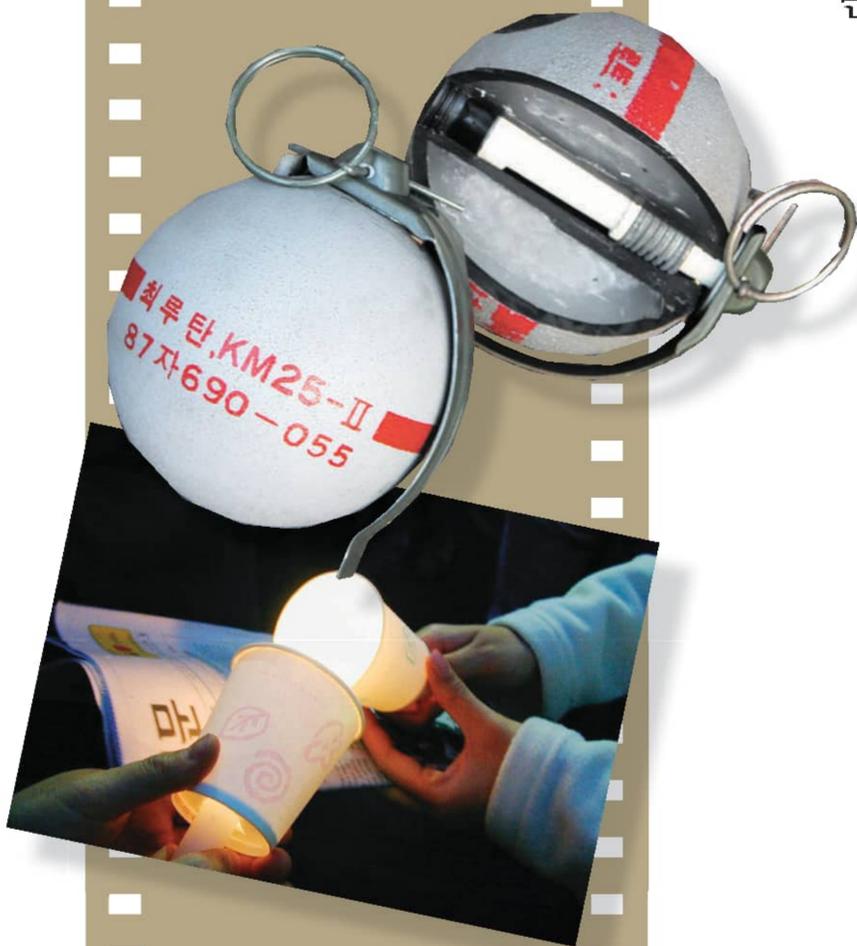
-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사료 확인(사료 수량·내용·상태)
- 사료의 가치에 대한 평가, 수집 범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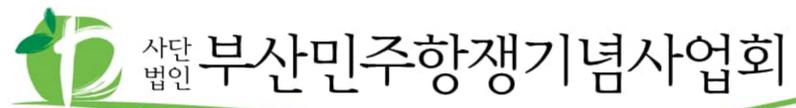
3. 사료 수집 일정 및 활용 협의

- 기증 사료 수집 일정 협의
- 기증 후 사료의 공개 범위와 전시·연구 등의 활용 방안 협의

4. 사료의 수집

- 담당자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사료 수집
- 기증확인서 발급 및 기증자 혜택 제공





민주항쟁기념관 48901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T. 051-790-7400
민주주의기록관 49214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193번길 161 T. 051-750-3800